

지방의 선택! 희망2007

대선 주자 선거캠프 광주·전남 누가 뛰나



17대 대통령선거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주자들의 선거캠프가 속속 꾸러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후보간 경합전이 치열한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5월을 전후해 선대위를 발족하는 등 전국 조직 구성을 거의 마친 상태다.

범여권 후보들은 아직 공식 선대위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외곽 단체를 구축하면서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예전에는 산악회 등 단순 친목모임을 외곽조직으로 활용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정책개발과 연구 등의 기능을 함께 하는 '포럼(Forum)'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책 개발·연구 전문가 대거 참여

'포럼' 등 활용 세 확장... 산악회 등 친목모임·외곽조직이 끌기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지난달 초 선 거대책임위원회가 공식 발족, 체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석홍 전 의원은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이가연 광주당 협위원장은 광주선대위원장, 전영환 전남당협위원장은 전남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전 시장의 외곽조직은 '희망 21 산악회', 광주·전남지부 회장은 사업가인 한경호씨가 맡아 매월 넷째주 토요일 산행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있다. 또 선거 조직의 베이스캠프 격인 '인국포럼'의 광주·전남지역 네트워크인 '나라사랑시민포럼'은 임동오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장이 대표를 맡아 학계와 법조계, 기업인 등 전문가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정책지원 교수단에는 이정록·최협·박상규(전남대), 김기광·백세준(조선대), 문기호·우성대(목포대), 김형근(목포해양대), 김성후(동산대), 김도희(호남대)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지난달 발족한 선대위 인선 결과, 중앙선대위 고문으로 이환의 전 부총재가 올랐고 광주 선대위원장은 박영철 전 대사, 전남 선대위원장은 안희석 무안·신안지역위원장이 각각 맡았다.

박 전 대표의 외곽지자체인 '새시대 새물결 운동본부'가 지난 2월 말 광주에서 창립대회를 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갔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새마을운동 지지자들의 모임이라고 밝히고 있

는 이 단체는 호남에만 1천5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인사로는 시인 박영무씨가 의장, 장희정 진영출판사 대표가 광주시지부장, 한남렬씨가 전남지부장으로 각각 활동 중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지난달 17일 손 전 지사를 지지하는 외곽조직 '선진 평화연대'가 출범, 전국적인 조직의 기틀을 만들었다. 광주·전남에서는 오는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세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에서만 이미 5천여명의 조직원을 확보할 정도다.

교수진으로 전남대 문기석·문형섭·박효상·신창선·한정희 교수와 조선대 노상재 교수 등이, 정치권에서는 김재균 전 광주 부구청장, 이해명 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임흥재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김형철 전 한나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등이 포함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철 국회의원, 손창환 전 광주·전남 공인회계사협회장, 김준태 시인, 임해철 광주오페라단장, 신택호 변호사 등도 손 전 지사를 위해 뛰고 있다.

팬클럽 '유화동진'도 7월내 공식 출범 을 앞두고 회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기자 출신인 최영소씨가 지난해 말부터 광주·전남에 내려와 조직 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 전 의장의 지지 조직

은 '평화경제포럼'의 광주·전남지부 성격인 '통일부국포럼'이 포럼의 공동대표로는 신홍수 광주·전남주유소협회장, 방영철 라이온스 35-B1지구 총재, 이만영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등이 활동 중이며 지난 3월 창립한 이래 1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박영수 전 광주시의원과 이재열 극참 광주·전남본부장이 지지 기반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온라인 조직인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도 정 전 의장의 확고한 지지기반이다.

◇이해찬 전 총리=뒤늦게 출마선언을 한만큼 아직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다. 친 노무현계의 서갑원 의원이 선두에서 뛰고 있으며 서대석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세력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평가포럼' 회원 상당수가 이전 총리 측을 지지하고 있어 조직 활성화에 큰 힘이 된다는 게 캠프 측의 이야기다. 이 외에 광주·전남 재야 운동권 세력의 일부가 이 전 총리를 측면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천정배 의원=목포 출신인 천 의원은 탈당 이후 '민생모임'을 이끌며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생모임의 광주·전남 외곽조직인 '민생포럼'도 지난 5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대회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날일모 사장, 조국현 전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 오병주 전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김용영 동산대 교수가, 집행위원장에 이상갑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학규 의원=지난 4월 목포에서 출범한 '해피코리아포럼' 서남권 본부가 김 의원의 대표적인 외곽 지원 그룹, 이 모임은 조선대 노영복 교수의 주도로 1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치근 전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이윤정 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여성위원장이 뛰고 있다. 임호경 전 화순군수도 김 의원의 지지세 확산에 앞장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태 전 의원=지난해 3월 광주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강 전 의원은 2년 전 민선봉사조직 '빛나는 대한민국연대'의 전국화를 꾀해왔다. 현재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시·도에 광역본부, 150개 시·군에 지부를 구축했으며 회원 수는 3만여명에 이른다.

광주본부장은 유동국 전 전남매일 회장, 전남본부장은 이정희 전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각각 맡고 있으며, 광주·전남 시·군·구 지부는 정수생 전 순천부시장(순천), 백도선 전 장성부군수(장흥)를 비롯한 전직 관료와 지방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석홍 전 의원
이환의 전 부총재
김재균 전 광주부구청장
이만영 전 청와대비서관
서갑원 의원
김용영 교수
임호경 전 화순군수
이정희 전 광주변협회장

■ 대선 불출마 고건·김근태 조직 어디로?

한나라당에서 까지 손짓

'한반도포럼'·'우민회' 손학규전지사 측으로 기운 듯

대선 후보들이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면서 도중 하차한 고건 전 국무총리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지지세력이 어느 후보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 전 총리의 '우민회'와 김 전 의장의 '한반도포럼'은 비교적 탄탄한 조직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어느 후보든 욕심을 내 불만을 조직이다. 때문에 범여권 및 비한나라당 후보뿐 아니라 한나라당 후보 측에서도 손을 뻗치고 있다.

현재 이 두 조직 회원의 대부분은 선거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범여권 및 비한나라당 후보 측과 면밀히 교감하며 지원 여부를 점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민회의 경우 서울지역의 일부 회원들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쪽으로 돌아선 것과 달리 차분하게 정치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김선문 전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등 200여명

의 우민회 소속원들은 손학규 전 경기 지사를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반도포럼의 경우 손학규 전 광주북구청장 전 공동 대표의 행보가 관심이다. 김 전 의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번뇌의 나날을 보낸 김 전 대표는 손 전 지사의 삼고초려에 호응, 최근 손 전 지사의 일을 돕기로 하고 선진평화연합 조직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선진평화연합 광주·전남본부 발대식은 오는 15일 열린다.

김 전 의장을 지원했던 광주·전남 지역 시민사회 및 재야단체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현재까지 이들 대부분은 범여권 대통합을 위한 노력에만 전념할 뿐 커다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친노계열의 일부 인사들은 이해찬 전 총리를 돕고 있으며 또 일부는 손 전 지사를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선 4기 출범 1년... 3기 단체장들 밀하나

정치 재개 or 본업 복귀

민선 4기 출범 1년이 지나면서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대 경선 또는 본선에서 패하거나 3선 연임 제한으로 그만둔 민선 3기 단체장들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그룹은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재기를 노리며 범여권 대통합을 위해 힘을 실고 있는 인사들이다. 단체장 이전 자신의 직업으로 되돌아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서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18대 총선(4월 9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들 도 적지 않다.

◇정치권 활동=김종식 전 광주 서구청장과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은 지난 4월 발족된 중도개혁통합신당 광주시당 발기인에 양형열·염동연 의원 등과 함께 참여한 바 있으며, 송 전 청장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지지 모임인 '광주·전남 통일부국포럼' 상임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패배 이후 전남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광주대에서 강의를 하기도 한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지난달 25일 "범여권 대통합의 역사에 동참해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겠다"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고현석 전 곡성군수는 지난달 발족된 광주·전남 참여정부 평가포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진중근 전 고흥군수도 범여권 대통합 행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본업 복귀, 봉사활동=민선 2·3기 보성군수를 지낸 하승완 전 군수는 지방선거 패배 후 본업인 변호사로 돌아가 법무법인 서석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3선 군수를 지내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한 김홍식 전 장성군수는 '장성 아카데미' 창설자답게 '주식회사 장성군 이야기' 등을 주제로 강연 활동을 해왔으며, 김병열 전 영광군수는 군내 복지시설에서 무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영남 전 화순군수는 여성단체 활동과 개인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갑(조호준 전 순천시장) 중이거 행정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광주대에서 강의를 하기도 한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지난달 25일 "범여권 대통합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요양/재활전문 호치병원 !!!

호치병원의 특징

- 2000평 규모의 호치빌딩
- 600평 규모의 연세노인 생활복지관
-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 자주나갈 문병
- 친구 같은 친밀한 분위기 조성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심장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노인과, 치정내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방사선과, 가정의학과,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임상병리

호치병원은 6가지의 임팩티브에 대해드립니다.

호치병원

020-525-1000 020-525-0852